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第316回 達西區議會(第2次 定例會)
2025. 11. 27.(목)

2026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민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직접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향한 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54만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1,300여명 공직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5년도는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세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흔들림 없는 지혜와 혁신의 가치로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구민과 함께 달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8년 연속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과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를 수상하였고

꿈이룸옷장 개소로 청년 취업에는 응원을 더하였으며,

지난 9월 두류젊코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다문화정책 부문 대상과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지난 전국 평균 대비 26배나 높았던 혼인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최초 기부 키오스크 설치는 기술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이라는 혁신을 보여주었고, 10월에는 지역 최대 규모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 최초로 개발한 외국인 전용 개별 관광상품은 5점 만점에 4.9점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선돌보도교를 통해 이어진 선돌마당공원과 선돌공원은 선사시대 테마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났으며, 달서하프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대인 1만4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단위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229개 지자체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에 빛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홍보대사 이만웅을 통한 홍보와 외식업계 협약을 통한 기후위기식단 캠페인 전개로 지역 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 하였습니다.

또한, 학산공원 바위정원과 그동안 편백나무 5만 그루 식재 및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으로 도심 곳곳에서 힐링을 선사하고 두류3동 도시재생 공모 선정으로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개청 이래 최초의 국제행사인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관 개관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AI 전환 시대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생성형 AI 교육 확대와 구립도서관 스마트시스템 구축도 마쳤습니다.

소통·행정 분야에서는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SA)등급과 함께 대구·경북 최초 지방정부 AI 혁신 대상을 수상하였고,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개소로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대구 최초 AI 아나운서 도입,
대표 캐릭터 「달수와 달희」 3D 제작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등
구정 전(全) 분야에 걸친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72건, 172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2026년 구정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과 시민이 활기찬,
열정적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의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센터를 통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우리의 미래 달서 청년들이 자립과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힘들게 달려온 취업 준비가 헛되지 않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글로벌 잡페어, K-Move 스쿨 지원사업 등을 통해
꿈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달서50+ 센터 운영 및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신중년세대의 인생 제2막도 멋지게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창업 실전 경험과 시장 검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으며,

두류젊코센터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희망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사람으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을 되찾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략적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
전(全) 과정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더 약한 곳을 보듬으며,

더 행복한 동행을 하는 복지 달서를 위해

「달서 똑똑! 도움소」, 「달수·달희단」 사업 등
달서형 복지위기 대응 시스템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ZERO! 시대를 열어가고,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 과
「출산BooM 달서 프로젝트」 를 통해
만남 - 결혼 - 출산 - 육아라는 행복 순환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달서별빛캠프 북편 숲속 모험 놀이터('26. 3월 준공 예정)
조성과 어린이공원 정비를 추진하고,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이전 개소하여
경력단절 예방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하여
여성친화도시 달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의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올해 국가차원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487개의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앞장서겠으며,

디지털 시대의 이면인 어르신들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법 등 실습 위주의 강의 제공으로
사회 적응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곳곳이 무대가 되는,
특색있는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달비달맞이축제, 와룡민속한마당 등
우리 고유 문화 축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구민 맞춤형 달서문화재단 운영으로
문화도시로의 품격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달성습지, 대명유수지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시민의 품에 가득 안겨드릴 수 있도록
생태관광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개 지자체와 연계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대구 역사문화탐험대」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달서구의 가치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최고(最古) 문화인 선사시대로 테마거리는
시비를 활용한 조형물 추가 설치로 상상력을 더해나가겠습니다,

달서별빛캠프 서편 확장과 함께
캠핑장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
달서의 아름다운 전경을 눈과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 인플루언서와 함께
우리 구 대표 명소를 알리고
달서만의 고유한 시간성과 감성을 풀어내는 관광스토리,
생활 속에서 영위하는 문화를 통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달서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세대에게 나무가 주는,
탄소중립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심 내 담장, 옹벽 등 회색 인공 구조물과
녹지 내 빈터에 녹색을 입히는 그린카펫 정책으로
도시를 푸른 비단길로 만들고,

한살들 산림휴양공원과 치유의 숲,
그리고 수밭근린공원과 연계한 생태관 조성 추진 등으로
숲과 사람·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동시에,

2040 달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주택과 상업·공공건물에 설치해
지역 에너지 자립 도모에 앞장서겠으며,

탄소중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여
지역의 녹색환경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청신호가 켜진 두류공원에 대해
뉴옥센트럴파크화 조성 구상안을 대구시에 제안함으로써
도심 속 복합 문화·녹지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꿈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는,
도전과 성장의 열린 배움 도시를 위해

올해 개관한 평생학습관을 구심점으로
생활권 기반의 동네학습관을 조성·운영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
명사 초청 인문학 콘서트와 달서희망인문극장을 통해
풍요로운 삶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창작센터, 디지털 체험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적 과학인재, 우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력 및 탐구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자존감을 심어주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실공원에 숲속 도서관과 숲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자연 속에서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꿈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스마트 도시에 소통을 담은,
지방시대 선도 도시 달서를 향해

구민 삶과 직결된 행정 업무를
AI 기술을 접목한 챗봇으로 구현해 소통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달서아이꿈센터, 복지관,
청소년 시설 등 생활 SOC시설에 인공지능과 로봇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보급하고,

달서디지털체험센터와 창작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신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일상을 디지털 혁신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행정기관 주도의 구정 홍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획 영상·홍보 음원 제작 등으로
비용은 낮추고 홍보 효과는 높이는
미래형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현장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희망⁺ 현장 소통 간담회,
달서구민제안, 달서⁺ 구민청 등을 지속 추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달서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와

2026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총 1조 1천 95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23%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세수 성장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상권활성화 사업에 25억원,

지역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4억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육성에 8억원 등

경제·일자리분야에 141억원을 배분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 급여,
장애인 연금 2,134억원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영아 및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693억원,
출산부 문화조성과 출산 지원사업 등에 65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01억원 등
복지·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8,9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표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관광 활성화 및 선사시대로 운영사업 5억원,
달서선사관 및 달서별빛캠핑장 운영에 11억원,
달서문화재단 및 달서아트센터 운영 48억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3억원을 배분하였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친환경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34억원,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 39억원,
가로수 및 시설녹지 조성·관리에 27억원,

탄소포인트 지원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원 등
도시·환경분야에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등에 10억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63억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억원 등
교육분야에 90억원을 배분하였고,

스마트 행정구현과 디지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디지털체험센터 운영 등 12억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2억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원 등
스마트도시 및 안전분야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공공행정분야와 예비비 등에
1,859억원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6년 민선6기 보궐 선거로 구정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달서구는 여러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산업과 자영업 중심의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유출됐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낙후된 주거지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문화적 기반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허나 이제 달서구는 일자리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지역 역사를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매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총 6개 동 도시재생 공모 선정은 삶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난 10여 년간 심어온 편백을 포함한 총 580만 그루의 수목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도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목표로 착공을 시작한 대구산업선 중심에는 2021년 우리가 해낸 성서공단호림역 유치가, 올해 설계에 착수한 대구시 신청사에는 2019년 유치한 60만 구민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민선8기의 결실과 완성을 다지고
민선9기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지는
의미있는 해라 생각합니다.

38살의 청년 달서가 열정과 진심을 담아 쌓아 올린
수많은 성과를 발판 삼아 이제는 대구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백년 도시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일상과 맞닿은 주요 사업들이
달서구의회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모두에게 더 큰 행복으로 선사되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안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27.

달서구청장 이 태 훈